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2년 12월 6일(화) 총 2매		
담당 부서	안전정책과	담당자	•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이성주 ☎440-5746 • 담당자 문수미 ☎440-5756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시민체감 안전생활환경 조성위해 민관협력하기로

- 6일, 2022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
- 공공기관, 민간단체 대표 등 모여 안전관리 중점과제 논의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6일 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해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안전감찰 중점과제를 공유하고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인천시, 10개 군·구,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32개 공공기관의 안전·감사 관련 부서장급 공무원(임직원) 및 민간단체 대표 등 총 54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이날 회의를 통해 2022년도 안전감찰 주요성과와 2023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올해 ▲겨울철 대설·한파 ▲자전거 도로 ▲어린이 놀이시설 ▲여름철 풍수해 ▲야외 운동기구 및 해안데크의 안전관리 실태 감찰을 실시했으며, 총 220건을 적발해 시정요구 등 처분 조치했다.

또한 내년 안전감찰 추진계획으로 ▲대설·한파 ▲봄철 산불 ▲풍수해 대응 재난관리실태 및 ▲도시철도 역사 ▲기계식 주차장 ▲승강기 시설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감찰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개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은 소관 사업 관련 안전관리 중점과제를 일제히 발표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 의지를 피력했다.

박병근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민·관 소통과 유관기관 간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유관기관 간 안전관리 역량을 결집한다면 시너지 효과로 보다 효율적인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6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